

#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후속조치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2005년 3월 채택)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작업반은 7월 7일~8일간 파리선언 이행 점검을 위한 12개 지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I. 핵심내용

- 12개 지표에 대한 기준선(Baselines) 및 목표(Targets)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에 도달(일부 지표에 대하여 미국은 유보적 입장 표명)한 바, 우리나라도 향후 DAC 가입 준비차원에서 파리선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개도국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는 원조효과에 관한 고위급포럼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개최기로 합의함.

## II. 세부내용

### 1. 12개 지표에 대한 검토

- 지표1(개도국의 실행가능한 개발전략 수립)과 관련, 최소한 75%의 개도국이 실행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에 합의함.
- 지표2(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 수립)를 공공재정관리체제와 조달체제로 구분하여
  - 공공재정관리체제에 대해서는 50%의 개도국이 CPIA(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예산 및 재정관리체제를 분석·평가하는 등급)상 최소 1등급(0.5점)을 개선기로 합의하고
  - 조달체제에 대해서는 33%의 개도국이 최소 1등급(총 4개 등급 중)을 개선기로 합의함.
- 지표2(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 수립)와 지표5(공여국이 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를 이용)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 2개 지표를 연계하여 검토한 바, 기준선 및

구체적인 목표에 관하여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커서 논란이 많았음.

- 지표3(개도국의 예산에 잡히는 원조흐름)과 관련, 개도국의 정부예산에 기록되는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흐름(분자)이 회계연도에 예정된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흐름(분모)의 98%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함(지표7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표7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분자 및 분모의 정의, 포함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음).
- 지표4(개도국의 개발전략과 일치된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와 관련, 조정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협력의 규모(분자)가 총 기술협력 규모의 64%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함(미국은 기술협력을 개도국의 능력배양의 대용물로 간주하는데 이의를 제기함).
- 지표5(공여국이 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 이용)와 관련
  - CPIA상 5점 이상인(즉, 공공재정관리체제가 양호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체제를 통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흐름을 3분의 2 감축하고 100%의 공여국이 개도국 체제를 이용한다는 목표에 합의함.
  - CPIA상 3.5 내지 4.5인(공공재정관리체제가 보통수준인)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체제를 통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흐름을 3분의 1 감축하고 90%의 공여국이 개도국의 체제를 이용하기로 합의함(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보적 입장 표명).
- 지표6(프로젝트관리사무소(PIU) 병행 설치를 피함

으로써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과 관련, Parallel PIU의 정의를 기존 부처/기관의 프로젝트 이행조직과 별도로 설립되는 또는 기존 부처의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으로서 직원들의 보수를 외부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외부의 재정지원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외부기관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조직으로 합의한 후에 이러한 조직을 3분의 2 감축하기로 하였음.

- 지표7(예측가능한 원조 제공)과 관련, 예측가능성의 정의를 회계연도에 지출(예정된 지출)되는 원조흐름을 분자로 하고, 공여국이 회계연도에 지원을 약속한 원조흐름을 분모로 하여 예측가능성의 목표를 90%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함.
- 지표8(Untied aid)은 당초부터 양자간 원조의 불구속성(Untied)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지표9(Programme-based approaches에 따른 원조 제공) 관련, 전체 원조흐름 중에서 Programme-based approach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규모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함.
- 지표10(공여국의 공통 사절단 파견 및 국가분석작업의 공통실시) 관련, 원조현장에 파견되는 공여국 공통사절단이 전체 사절단의 40%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공여국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국가분석작업은 전체 국가분석작업의 3분의 2가 넘도록 하기로 합의함.
- 지표11(원조성과 평가시스템) 관련, 투명하고 심사가능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공여국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합의함.

□ 지표12(상호 책임) 관련, 원조효과에 관하여 공여국과 개도국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공통으로 평가하기로 한 바, 이러한 평가에 모든 개도국이 참가하기로 합의함.

## 2. 향후 계획

□ 파리선언문은 지난 3월 채택 당시, 12개 지표별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여 DAC의 원조효과작업반으로 하여금 2005년 9월 이전에 합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31일간 1차 검토를 하였고 이번에 2차 검토를 통해 대체적 합의를 보았음.

□ 지난번 1차 검토 및 금번 2차 검토에는 OECD 회원국 외에도 12개 개도국 및 WB, IMF, UNDP,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한 바, 금번 합의사항을 파리선언문에 참가한 여타 국가들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문의하기로 하였음.

□ 또한 파리선언문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2008년도 고위급포럼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개최기로 하였음.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